

언약 갱신

**핵심 구절: "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
하지 않겠다고 함께 약속합니다."**

-느헤미야 10:39

선택한 성구:

느헤미야 10:28-39

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는 재위 7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 서기관이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자유롭게 갈 수 있다는 법령을 내렸어요. 또한 아닥사스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과 금을 제공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필요한 제물을 구입하고 하나님의 집에 필요한

다른 모든 것을 조달할 수 있도록 명령했습니다.
에스라 7:1-27

13년 후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던 유대인
남자들 중 일부가 바벨론으로 돌아갔습니다. 그들은
왕의 신임을 받는 시종이었던 유대인 느헤미야에게
예루살렘에 여전히 남아 있는 폐허를 보고했습니다.
이 보고를 들은 느헤미야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.
그는 이스라엘의 죄()와 부족함을 고백하고 예루살렘
재건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때 왕
앞에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
간구했습니다. 하나님의 은혜로 아닥사스다는
느헤미야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. 느헤미야 1장 및
2장

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 성벽을
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. (3-6장). 나중에 에스라는
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남녀 회중에게

읽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. 레위인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"분명하게" 설명하여 모든 사람이 "이해할 수 있도록" 했습니다. 느헤미야 8:1-8

"모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."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. 그러자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: "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다.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." ... "여호와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." - 9,10절

그 후 백성들은 주님을 경배하고 죄를 고백하며 이스라엘 역사에 걸친 과거의 범죄를 이야기했습니다. (느헤미야 9:1-37). 그들은 하나님과 "확실한 언약을 맺겠다"고 서약하고, 그 언약을 쓰고 인봉했습니다. (38절). 그들은 또한 " 모든 명령과 규정과 법령을 주의 깊게 준수"하고, 주님을 위한 모든

헌금에 기여하며, 그들의 하나님을 "집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"고 약속했습니다. 느헤미야 10:28-39

느헤미야서 10장에 기록된 이 장면은 하나님 나라의 지상 단계에서 일어날 일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. 그 때 인류는 대적의 땅, 즉 죽음이라는 큰 적으로부터 돌아올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: "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슬픔 대신 위로와 기쁨을 주겠다 ...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: 너희는 울지 말고 눈물을 흘리지 말라, 너희가 행한 일에 보상을 받을 것이니,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. 그들은 적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." 예레미야 31:13,16; 고린도전서 15:26

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"새 언약"을 맺으실 것입니다. "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,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과 새 언약을 맺을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

인도하여 낼 때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.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내가 그들을 사랑했지만 그들은 그 언약을 어겼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. 그러나 그 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 과 맺을 새 언약은 이것입니다. 나는 내 지시를 그들의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.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. 그들은 이웃에게 가르칠 필요도 없고, 친척에게 '너희는 주님을 알아야 한다'고 가르칠 필요도 없을 것이다. 지극히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든 사람에게 ... 내가 그들의 악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." (예레미야 31:31-34). 나머지 인류가 무덤에서 나올 때, 그들도 이 언약에 따라 주님께 돌아올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. 이사야 56:6-8; 2:2-4